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고난주간 특별 사경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

4월 1일(월) 저녁부터 5일(금) 새벽까지
강사는 중경 총회장 김덕신 목사

교회에서는 금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김덕신 목사(대구동부교회 담임, 중경총회장)를 강사로 모시고 고난주간 특별 사경회를 갖는다.

이번 특별 사경회의 표어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 26:46)이며 주제 성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8:3)이다.

사경회 기간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4월 1일(월) 저녁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일 새벽까지인데 집회는 본당에서 새벽기도회(새벽 5시), 낮공부(오전 10시 30분), 저녁집회(오후 7시 30분) 등 하루 세번씩 있게 된다. 총 11번의 모든 집회에 강사인 김덕신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사경회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의 차질도 없이 전 성도들이 함께 은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에 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크게 다섯으로 나눈다면 세상에 나심과 죽음, 부활

하심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그 어느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는 없는데도 우리는 자칫 신·불신을 막론하고 들떠 지내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축하 분위기의 고조에 따른 반현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격언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며 첫번 성찬식을 행하시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놓고 땀이 땀방울같이 되도



강사 김덕신 목사

- 대구노회 중경 노회장
- 전 대구신학교 교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경총회장(합동)
- 현 동부교회 당회장

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였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계속 범할 수 없다. 이제는 깨어야 한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단은 양무리를 홀 어지게 하기 위해 목자를 치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사단의

의 계계를 잘 아는 우리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도 쫓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먹는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찬미하며 나아가야 하겠다.

특히 현재 우리교회는 당회장이 부재중으로 새로운 당회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때에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수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사경회에 단 한 시간도 빠뜨리지 말고 참석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의 묵은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그리하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 6:17)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자기 뒤통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 언덕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사랑의 수화교실 신청 접수

에바다부에서는 오는 3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5주 과정으로 초·중·고급반 수화교실을 개설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구역 일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수요일반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교 활성화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 과정: 주일반 오후 3시 ~ 5시 (초·중·고급반)
수요일반 오후 1시 ~ 3시(초급반)
목요일반 저녁 7시 ~ 9시(초·중급반)
- 수강료: 1만원(교재대 포함)
- 신청: 에바다부 교사회실

경리책임자 구함

교회에서는 사무국에서 근무할 경리책임자를 구합니다. 상고 이상을 졸업한 충현교회 남녀 세례교인이며 일반 기업체나 은행 등에서 다년간 경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이력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선착순 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 포함)
기타 서류는 면접 후 제출
- 서류마감: '96. 3. 31
- 서류제출처: 사무국
- 문의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교 402)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17일(주일) 정오부터 3월 22일(금) 정오부터 제6교구
3월 22일(금) 정오부터 3월 27일(수) 정오까지 제7교구가



원로목사 모임 우리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 내에는 평생 목회와 길을 걸으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신 32명의 원로목사들이 있다. 이 원로목사들의 3월 정기모임이 지난 3월 12일(화) 11시 본 교회 천교관 5층에 있는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32명의 회원중 30명이 참석한 원로목사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운 시간들을 가졌다.

동서울노회 제49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실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① 목사고시 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전도사고시 청원 ③ 강도사고시 청원 ④ 신학계속 추천 청원
(총신대학 및 총신 신대원 재학생) ⑤ 목사후보생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입학 지원자,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제출 마감: 3월 17일(주일)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교 402), 563-2339)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의인의 담대한 기도

(시 17:1-15)

당시의 환경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짐작컨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눈 땅에 있는 아히도벨 대제사장을 방문하여 떡 몇 덩이와 골리앗의 유품인 칼을 얻어 그곳을 떠났는데, 사울은 사건의 전말도 심의해보지 않고 도예이 고자질하는 대로 아히도벨이 다윗과 한패라고 믿어 아히도벨과 눈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 참혹한 학살 중에 유일하게 아히도벨의 아들 아비아달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알릴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장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에 지은 시인 줄로 압니다.

1.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17:1-14)

(1) 무죄한 자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소서"(17:1)라고 했습니다.

땅 위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 왕이 뒤집어씌우는 반역의 죄는 그에게 없습니다. 사울 왕과 그 졸도들이 모략하는 죄는 다윗에게 없다는 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내가 범한 죄를 숨겨놓고 핑계하지 말고 그대로 몽땅 털어놓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시간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충성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의가 무엇입니까?

첫째 정직함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뱀피치지 아니하리이다"(17:1, 3)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 거짓말을 안했습니다. 사람 앞에 신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뱀피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것과 같이 다윗은 말씀에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평생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게 무슨무슨 죄 다 범했다고 뒤집어 씌워도 끝까지 사울에게 공손했고 그 입에는 축복 뿐이지 저주가 없습니다.

둘째 공평함입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17:2, 4, 5)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나 외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공평을 떠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치우쳐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서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사오니 내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능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17:6-9)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이제는 펴주소서.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보호가 아니면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피한 나를 위해서 이제는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앉아서 보지만 마시고 일어나 손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펴시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의인을 돌보아 주시면 사람에게 구원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날개에 품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 자신은 능동자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지체는 능동자입니다. 민지만 하나 들어가도, 포레만 하나 들어가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능동자처럼 약하오니 하나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능동자이지만 또한 능동자처럼 보호를 많이 받는 지체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악인을 심판하옵소서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내가 범한 죄를 숨겨놓고 핑계하지 말고 그대로 몽땅 털어놓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시간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충성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 회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17:13-14)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원수들입니다. 또한 입이 악독한 원수들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 약자를 저주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모략을 뒤집어 씌웁니다. 악한 사람의 눈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숨겨두고 의인의 티를, 의인의 발걸음을 '무엇 잘못하는 것 없다' 현미경을 끼고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대산만큼 보태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악인의 손은 그물을 들고 숨어 있다가 올무를 씌워 의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악독한 무리들은 사자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다윗이 도망 가면서 그 시대의 사람을 보니 이런 무리가 꼭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심판해 주셔야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칼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칼은 아무 소리도 안났는데 악인을 전부 다 처치해 버리시는 심판의 칼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히스기야 왕을 업신여기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날 밤이 밝기 전에 천사가 내려와 18만 5천명을 죽였는데 칼 번쩍거리는 것도 못보고 칼에 맞아 죽는 소리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한 번 뽑으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칼을 드시는 때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2. 다윗의 결심이 어떠합니까(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켈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17:15)라고 했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는 쫓겨 다니는 신세의 가난뱅이입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었고 내 부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거저처럼 떡 몇 덩어리를 얻어다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내 재



산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땅 위에서 재산이 없고, 악한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세상 것마다 소망을 두지 말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밤낮 뵈을 수 있는 자만 되면 진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 손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우는 자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우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가고 그 육신이 썩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재산을 삼읍시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다 원하는데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막론하고 안개처럼 잠깐입니다. 또 세상의 불의한 권세는 눈 깜짝하는 동안 뿐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한 번 번쩍하는 날이면 소리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재산으로 삼으면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윗의 결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행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귀를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승리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날개를 기억하고 그 품에 숨겠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칼을 기억하고 구원의 방패로 삼겠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참 재산을 삼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귀로 들으시는 것을 알고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살피는 것을 알고 사람 안보는 곳에서도 선한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인을 붙들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약해도 문제 없을 줄 알고 그 날개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악인의 칼을 무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칼을 무시워해야 합니다. 돈으로, 권세로 재산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을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전권 필사(筆寫) 후기

김 중 태

(집사, 새가족부 양육위원)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별로 칭찬받을 일을 한 것도,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닌 일인데 여러 양육위원들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기회 주셔서 감히 성경쓰기를 도전케 하시고 그간 7개월여 동안 건강 주시사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 전권을 허물 많은 죄인의 손으로 필사하기까지 어려움 없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엔 그저 의무감

는지 모릅니다. 마침 교사 중에서도 권사님 한 분이 신약성경을 다 쓰셔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고는 할까요. 아무튼 제가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고 새가족들 앞에서 체면치레한 것도 감사했는데, 장로님의 계속적인 장권으로 구약까지 도전케 되었습니다. 마침내 215일 만에 펜을 놓았을 때의 기쁨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로역정을 마친 기독교가 천성문에 다다른 감격이라 하면 좀 과



▲ 필사한 성경 제본 앞에서 김창인 원로 목사님과 기념 촬영.

과 부담감에서 도전하게 된 것이 이렇게 큰 은혜속에 성경 필사를 마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작년 7월 첫주일 부장 장로님께서 새가족 및 양육위원 성경쓰기 대회를 2개월간 실시한다고 광고하실 때는 그저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며칠이 지난후 문득 염려가 생겼습니다. 만일 2개월 후에 새가족 중에서는 신약성경을 다 필사하신 분이 여러명 나오는데 교사 중에서는 한명도 없거나 너무 적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면서 솔직히 처음엔 새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울까봐 체면치레겸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2개월이 지난 후 아니나 다를까 신약성경을 다 필사하신 분이 새가족 중에서 4명이나 되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놀랐

장된 표현일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론 지루할 때도 있었고 중도에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인명, 지명만 계속되는 역사서나 비슷한 제사법이 열거되는 레위기는 정말 어려운 고비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매진토록 채근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축복이지만 쓰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평생에 한번씩은 성경을 필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리고 수시로 채찍질 하듯 격려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건강 주시고 큰 은혜 주신 참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송 근 호

(사랑부, 사랑2과)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난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신걸 확실히 모르면서 지내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신앙심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날, 불편한 몸인 나를 어머니께서 몇십년동안 다니시던 교회를 데리고 가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나에게에는 큰 상처를 입은 것같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내가 장애인 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는 시선같이 나에게에는 느껴졌습니다. 나는 최면에 걸린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책의 글자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난 그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왔지만 내 생각이 빗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건만 나를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같이 쳐다볼 수가 있나 하고 몇번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날 그후로는 난 바깥에 한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왜 이 세상에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보내셨나고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해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난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는 줄로 알고 기도드리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의 신앙심이 더욱 약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내기를 몇년.....

내가 이 중헌교회를 다니는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는 말에 난 아무런 생각없이 거기 나 갈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친구는 나같은 장애인이 많다고 하면서 와도 펜

찮다고 권해서 우리교회 사랑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가 정말로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싫은 따가운 시선도 없었고 오히려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낯설어 보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귀기엔 아직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신앙심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에는 부족함도 많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 먹어서 난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헌교회 사랑부에 들어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조금은 낯설고, 내가 정말 이 큰 교회를 다니는 걸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내게도 신앙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긍정보다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내 시선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몰랐던 내게 목사님의 설교는 나를 예수님게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특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여러분을 도와 주십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 적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조금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알도록 더욱더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내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만.....

끝으로 내게 세상을 다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해 주었던 우정희란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건넌던 출애굽 루트인 시내반도의 징검다리를 두드리며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던 시내반도는 크게 세 지형권으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 지형은 홍해를 건너 후 수르광야에서부터 마라, 엘림까지의 끝없는 모래사막 지형이다. 마라와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지만 이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없는 매마른 모래만 펼쳐지는 모래사막이다.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불모지다.

두번째 지형은 엘림에서부터 신광야까지,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바란광야에서부터 사해 남단의 지역인데 이곳도 간간이 있는 오아시스를 제외하고는 모래광야와 풀 한포기 없는 바위산이 반반씩 있는 광야지역이다.

세번째 지형은 르비딤에서부터 시내산을 거쳐 바란광야 전까지의 시내광야를 말하는데 시내산 주변의 대대적인 바위산맥 지형이다. 시내반도 남단의 대부분이 풀 한 포기 없는 벌거벗은 바위뿐이다. 흑갈색 적갈색 혹은 황갈색 바위 외에 바위산 사이의 골짜기의 좁은 길, 넓



징검다리

시내 반도의 징검다리를 두드리며

조 윤 재
(목사, 제9교구, 성경연구원 지도)

은 길이 있을 뿐이다.

지난 성지 연수 때 우리는 냉방차를 타고 더위를 느끼지 못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홍해를 건너고 시내반도의 모래사막을 건너고 바위산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 시내광야 돌다리를 두드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는 바위산과 매마른 골짜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계속되는 의문을 제시하며 갔다. 시내광야를 벗어나고 바란광야를 지나기 전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셨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는 바위산과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바라보며 과연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의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증하는 현장을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내광야! 냉방차 아니고는 5분이라도 밖에 나올 수 없는 불벌데워, 뜨거운 열기가 달아오르는 끝없는 모래사막 아무리 가도가도 그늘될 만한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200만이 한꺼번에 들어가 쉴 수 있는 냉방차보다 더 시원한 구름기둥 곧 구름나무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도 더워서 원망했다는 말은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이동식 냉방장치를 하늘에 설치해 주셨다.

또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먹을 양식

은 어디에서 공급될 수 있었는가.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포기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무슨 농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수많은 우양을 위한 목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50명 100명이거나 모르겠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농사와 육축이 어찌 가능했겠는가.

이것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이 환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시내반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시내반도의 환경이요, 시내반도를 지나가는 징검다리를 두드리는 의미이다.

시내반도를 여행한 많은 사람들이 시내반도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다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상이라면 비록 계속 걷기는 했지만 걱정, 근심, 불평, 일하는 고통없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바란광야를 지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였다.

토막소식

◆ 대학부 봉·공·방(봉천동 공부방)에서는 봉천5동 재개발지역 아이들의 학업을 돕고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지체들을 찾고 있다. 모임은 매주 월요일(오후 4시 30분), 수요일(오후 5시)에 있고(이들 중 하루 선택), 모임장소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앞이다. 문의는 ☎ 536-3966으로 하면 된다.

◆ 청년1부는 여름단기선교사역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이 기간에 맞춰 기도하며 준비된 영혼들과 함께 떠나려고 한다. 관심있는 청년1부(20~30세)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선교지로 해외는 이스라엘,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터키이고 국내는 낙도, 오지이며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다. 신청은 청년1부 선교방(교육관 512호), 면회실로 하면 된다.

또한 3월 24일은 이두란 원로전도사의 결혼특강이 교육관 514호에서 있으며, 3월 26일(화)에는 명동에서 명동찬양팀 주최로 총동원전도로 모인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선교주일(1월 28일)에 선교회비를 미처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과 선교회비를 작성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무국 창구에 선교회비봉투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년2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장식'이라는 주제로 건강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강지용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 교실)이며 날짜는 3월 3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는 교육관 314호이다.

◆ 사랑부에서는 3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에 칼빈홀에서 교사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김해룡 목사(사랑의교회).

◆ 새가정부에서는 새봄을 맞으며 3월 24일(주일) 새가정부에 재직된 모든 회원들이 출석하는 총동원 주일로 지키며 각 반별찬송가 부르기도회도 함께 연다.

제5교구의 사랑의 손길 운동

제5교구(교구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사순절을 보내며 최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노랑진 1구역 구역식구중 혼자 살고 있던 이성자 집사가 장파열로 두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 몇달 동안 입원하여 치료중인 데 금요일집회 때 온 교인이 이성자 집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이집사는 의료진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차도를 보이며 회복되어가고 있다.

제5교구에서는 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하루에 6~7만원씩 들어가는 입원비를 도와주기로 하고 '사랑의 손길' 운동을 편 결과 예상액의 3배 정도가 되는 163만원이 모금되어 이를 전달하며 감사와 섬김의 기쁨을 맛보았다.

중등3부 학부모 초청 기도회 3월 17일(주일) 12시 30분, 교육관 514호 많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수경 (중등3부 교사)

칠여년간의 성가대 생활을 접어두고 올해부터 중등3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병아리 교사인 내게 다가온 가장 실질적인 고민은 전체 학생심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배도 인도해야 하고 부모님과 학생에 대해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심방지침에 나왔었으나 두려움은 여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들을 해야 할지 걱정만 앞세기 시작했다.

예배를 위한 성경말씀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 말씀에 합당한 찬송은 무엇인지 목사님과 이분, 저분 선배 선생님들의 경험을 도움받아 말씀과 찬송을 선택하였다. 아, 이제 걱정 하나는 덜었고 드디어 다음날 두 학생의 집을 방문하기로 전화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일찍 퇴근한 길에 집에 잠시 들러 화장을 고치고 선생님다운 옷차림인지 거울 앞에 한번 서보고, 집을 나섰다. 마음은 벌써부터 쿵당거리고 서둘러 교회를 향하며 입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000의 중등부 교사입니다....." 이런 저런 인사말, 예배순서, 질문할 거리들을 차근차근 되뇌어 보았다. '그래 잘할 수 있을꺼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교회에 도착해서 학생집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약속한 학생은 친구와 나가버리고 집에 없었다. 생각지 못한 일이라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다음번으로 약속을 마루고 두번째 학생집으로 전화를 했다. 제발 하

는 심정으로.....

그런데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말이 "지금 부모님이 안계시니 다음에 오세요." 얼마나 섭섭하게 들리던지.

마음에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차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실망과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힘을 얻어 그 다음주부터 새롭게 심방을 시작했다. 심방을 다니며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새로워졌다. 부모님과 잠시지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학생의 생각이나 환경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학교 선생님이 지식을 가르친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사랑과 기도로 영혼을 기르는 것이다.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다운 주의 군사들이 교회 안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만들어졌다. 기도로 아이들이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너끈히 이길 힘을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3월 17일(주일),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기대하며 또 한편 부모님이 오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며 섭섭해하지 않을까 마음에 걱정을 안고 생각해 쫓는다.

하나님의 천국일꾼으로 자랄 우리 중등3부 아이들, 부모님들! 많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주세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선교 동역자님께 문안드립니다. 선교의 주역이신 주님께서 터키와 불가리아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저희 일꾼들을 사용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 E의 Y지역에서 E선교사와 함께 인도하는 부녀자 성경공부 모임에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터키 땅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과 같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얼마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Y라는 청년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경책을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영혼인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한 달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매 주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때를 인든지 못언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버림당함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복음에 온 세상에 증거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새제전교는 계속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류 역사는 그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매일매일 복음전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 생각하며 1월, 2월 기도편지를 드리게 됩니다.

1월 20일 비전트립 팀으로 이곳에 온 22명의 젊은 동역자들과 함께 4월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20차 B 방문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동안 인접에 있는 양문교회에서 본 교회는 월

세로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 Y교회를 찾는데 기도와 재정적인 도움을 통해서 완공된 Y교회의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간 비전트립 팀원들과 함께 찬양과 선물로 가지고 간 성찬기로 첫 성

방문하여 변호사인 어머니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잠깐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정치 활동하는 그의 아버지가 주위를 의식해서 그랬던지 작년 12월 1일 교

라....." 등등 괴상한 음성을 듣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이틴부르느교회를 중심으로 E, E, K 지역 등에 복음이 편안하게 전파되어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요청됩니다.

에스라, 사라, 테보라와 몇몇 아이들이 함께 2번째 어린이찬송가 테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O부인을 E선교사가 계속 만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B에 터키어를 쓰는 지역들에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가운데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1) 하신 말씀과 같이 한국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무대 속에서 라틴족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귀한 사명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나누어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선교사역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적인 기도와 물질적인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터키에서 김원호 선교사 가족 드림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터키 김원호 협력선교사

이 터키 땅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과 같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찬식을 집례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한 S전도사와 온 성도들이 앞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간에 진행해 오던 제자훈련원은 함께 동역해 오던 X목사가 계속해서 전담하기로 하고 금년부터 저는 교회 사역과 부녀자 성경공부, B사역 그리고 학업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컴퓨터 때문에 격을 두고 있었던 E대학 영어교육과 과정을 1~2년 내에 마치게 되면 정부로부터 정식 교사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한 교사 신분으로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새로운 개척지로 K지역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감사한 것은 B형제의 정신병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2월 11일) E선교사와 그의 집을

회 물품들을 집에서 철거해 주기를 저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B형제의 아버지에게 1시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을 하고 교회 물품을 차에 실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밖에서는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당신 아들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서 아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하십시오"

그 다음주 저와 함께 정신병원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기로 했는데 그의 어머니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주간 12월 8일 그는 수도 행거라에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B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는 죽기 하루전 병원에 찾아와 B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B형제가 계속 "원호를 죽여라. 어머니를 죽여